



最新
小說

雪

설

中

중

煤

매

峯

화



114

Inches 1 2 3 4 5 6 7 8

Centimetre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KODAK Color Control Patches

©Eastman Kodak Company, 1977



Blue Cyan Green Yellow Red Magenta White Brown Black



설 중 매 화

花 梅 中 雪



세월이 덧업도다 어는듯 적설이 다 녹여지고 사산에 파릇파릇한 풀이나고 봄
바람이 슬슬부러 춘흥을 자아내니 근심걱정 업는 사람 삼삼오오 작대하여 화
류청루 출입하기 적당도하고

수심에 싸인 사람 근심을 자아내고 슬흘을 도읍는때라 그때는 어는때이고 춘
삼월망간이라 후원에 싸엿는달이 그 흑운을 다 져치고 반공중에 소샷는대 그
달빛이 다동 김진사집 건넌방 남창에 빗치엿더라

그방 퇴마루에 나히 열오륙세가 랑증된 처녀하나히 달빛과 갓치 소복을하엿
케하고 정신업시 달을치어다보더니 도화양엽에 주준갓흔 눈물을쌍으로 흘리
며 혼자 탄식하는말이

에구 이신세를 엿지하나 남모르게 죽게되나 이몸이 죽는것은 조금도 섭섭지
안커니와 어는세월에 이 원수를 갚는단말인가 두렷한 저 명월은부모님 계신
곳을 두려시 보련만은 엿지타 이몸이 분명하고 수죽이 성한몸이 접친드시드
러안저 죽을때를 기다리리오 에라 죽기는 일반이니 남의게 욕을당하고 죽을

것업시 내 마음대로 죽든 살든 하여 보리라 하며 미다지를 시름업시 열고 그 방
으로 드러가더니 심이삼세 가량된 아해를 다정히 잠으면서 략루하며 탄식하
는 말이 이에 춘국아 너는 부대 잘 잊거라 나는 계모의 흉계를 아지 못하여 오
날 밤에 여가서 너를 다리고 지내지 못하고 몸을 피하여야 할터이니 가장 망극하
도다 단지슬 풀바는 우리 남편 서로 의지하여 세월을 보낼 적에 일시도 떠남이
업더니 천만의 외에 이런 일을 당하여 너를 적적한 빈방에 혼자 바리고 가는 일을
생각하니 흥겨이러지고 잔장이 라는 사람을 청련일장지로도 괴롭지 못할지라
아 못커나 내기리 좇치 못할 듯하니 슬프고 애연하고나 만약 내일이 순하면 다시
도라올거시니 그사이 그리운 생각이 잊거든 서로 보게 반지나 밧구어 씨자하
고 서로 밧구어 전후에 남매 손을 잡고 울며 경계할
이에 춘국아 너는 계모에게 극진이 공경하여 득죄함이 업게 하고 나의 도라오
기를 기다리면 되여 가는 대로 속기 올터이니 설어 말고 부대 잘 잊거라 하고 말을
마치며 대서동국하여 참아 서로 손을 난호지 못하니 읊흐다 생시에 청량업시
사랑하든 그 부모는 웃지 이런 때를 당하여 남편의 경상을 살피지 못하는 고하
며 춘국의 손을 썰치고 나 오려 하즉 춘국이 누의의 (白裳 백상을) 잡고 울며 왈
우리 남편 일사도 떠나 미업더니 홀연 금일은 나를 바리고 어대로 가시려 하나요
하며 좇차나오니 누의 춘국의 잔인한 형상을 보매 잔장이 총총이 씩씩지는지
라 할 일 업서 달내여 왈

이에 춘국아 내가 잠잔 달여 올거시니 우지 말나 하고 문을 고이 열고 소리 업시 나
서니 규중 처녀가 웃지 길을 알니 요 터진 골노 얼마를 가다가 한 곳에 다다르니
산은 첩첩 천봉이요 수는 잔잔 만곡이라 초목이 무성하고 송백이 자옥하여 인
적이 적막한대 창망야심에 두견소리 처량한지라 오도갈길이 망연하여 그 자리
에 펄석 주저안지며 탄식하여 왈

발그신 명던은 구버살 피소서 옥희의 팔자가 기박하와 철세에 모친을 여히고 또
심륙세에 부친을 여히옵고 남매 서로 의지하와 서산에 지는 해와 동역에 돛는
달을 대하면 잔장이 슬허지고 후원에 피는 꽃과 옥계에 돛는 풀을 보면 스름업
시 눈물이 비오듯하여 지내옵더니 삼년후 계모를 어드매 셔품이 불칙하여 박
대함이 심한지라 셔른 잔장과 슬픈 마음을 이기지 못하옵고 낮이면 부친을 바라
고 밤이면 망모를 생각하여 남매 서로 손을 잡아 장장 하일과 긴긴 추야를 장우
단탄으로 지내옵더니 댕만 뜻 밧게 금년 춘절에 부친이 불행이 세상을 바리시니
살아서 소용업는 중 계모 남매의 흉계로써 이 몸을 죽이려 함으로 오날날 이 물
에 빠져 죽사오니 댕지 일월 성신은 옥희의 무죄함을 구버살 피소서 하며 그 강
물에 빠져 었더라

춘하추동 사시를 물론하고 위생가에서는 새벽이면 으레히 신선한 공기를 호
흡하는 법이라 그 강근디에 사는 내지인 국미 차랑이라 하는 신사도 위생가라 그
날도 신선한 공기를 호흡할 차로 자기 집 후원에 올라와 공기를 맛참 호흡하

는대 그 광경을보고 급히찾아가서 그 처녀를 구원하여 다리고 집에 도라와 물을 도하게 한 후에 사지를 주물너 정신을 차린 후에 그 곡절을 물었더라

(국미) 아! 그대를 보아하니 상한의 집녀자는 아닌대 무삼곡절도 강물에 빠지며 죽으려고 하였소 조곰도 괴망치말고 자셔한 말을 하시오

옥희 강물에 빠진 생각은 자제이나나 그 후에 웃지하여 이집에 드리왔는지 아 주생각이 아니나는지라 정신을 차려 그 일인을 살펴보니 잠시를 보아도 얼굴에 인자함이 나타나고 겸하여 조선말을 하거날 머리를 수구리고 목소리를 나 죽이하야

(옥) 네! 귀공의 은덕은 태산이 앓사오나 이처럼 죽었든 사람을 살려 주 시니 대단히 감사하옵나이다

(국미) 허허 사람이 물에 빠지며 죽게된거슬 보고서 엇지 견지지 안이하겟 소 그런말은 나종에 하련이와 그대의 일흔이 무어시오

(옥) 네! 일흔은 옥희을시다

(국미) 네! 실례의 말이요만은 올에 무슨생이오

(옥) 네! 올에 열여섯살이올시다

(국미) 허허 그러면 내나이 지금 오십이라 해라한다고 엇지알지마소

(옥) 에구 천만에 말삼이올시다 해라를하시면 엇더하온잇가

(국미) 허허 그러치 아모관계는 업지만은 초면에 대하여 해라하는거시 안이

되듯하여서 그런말일세 그러나 무삼곡절도 강물에 빠지며 죽으려하였나요 옥희 눈물을 흘리며

(옥) 네! 이몸에 대하여 고생한 말삼은 (一口難說) 일구난설이올시다 제 가철세적에 모친을여히고 구세에 계모를맞나 고생하든말이며 금년에 부친을 마쳐 여히고 춘국이로 더부러 세월을 보내다가 계모의 흉계에 드러서 그와갓치 죽기로 작정을 하였다하며

충격이 났키여 말을맞치지 못하는지라

(국미) 옥희의 사실상이야기를 이웁이듯더니 수건을내여 눈물을 씨스며

(국미) 허허 그러면 올해 춘국의 나히 열살이나

(옥) 네! 올해 열두살이람이다

(국미) 그러면 너의 계모가 여기있다는 말을드르면 너를곳 차져갈터이로구나

(옥) 글세올시다

(국미) 자! 그러면 차져오기전에 피신을 하는거시 웃더한가

옥희 심분다행하여

(옥) 네! 나는 불가불 피신을하여야 할터인데 우리 춘국이가 무삼고생을 하고잇난지 알수가업습이다 그런생각은 채! 못하고 그저이몸에 당장 옥이 도라오기에 단지죽기로 작정을하고 나왔더니 천만뜻밖에 귀공의 은덕을입

어 지금살고보니 춘국의 생각이 불연듯 남이다
(국미) 암! 그야 그것치만 넷말에도 내발등에 불을 켜야 부모의 발등에 불을 켜단 말이 잊지아니한가 그러하니 지금이라도 나고 내지로갔스면 네게는 아모염녀가 업슬듯하다

옥희 일골에 희색을 띄우며

(옥) 네! 말삼은 고마웁습이다마는 웃지가기를 바라겟습잇가

(국미) 자! 그러면 춘국이도 내가보살펴 줄거시니 아모염여말고 지금이라도 동경으로 가자하며

행장을차려 남문정거장에와서 부산가는 급행차를 탔더라 기적소리 한번에 경성은 점점머러지고 동경은 점점갓가와지는도다 류리창을 반개하고 정신업시 내다보니 웃지하면 텅디가 보지도 안이하고 웃지하면 건넌산이 기차를 쏘라는듯하고 눈압해 보이는 집드리 정신업시 다라나니 웃지슬프고 한심치 아니하리오

탄식하야왈 텅하에 역유슈 업것마는 웃지라 이내간장 썩는것슬 뉘라서알니오 춘국아 부대부대 잘잇거라 나의팔자 기박하야 죽기로 작정하고 강물에 빠지엿드니 의외에 은인을 만나죽지안코 살아서 동경으로 건너가니 부대게모의게 득죄치말고 만슈무강하야라 이왕에 이모양된 누의를 생각지말고 어전배필과 혼인하야 자수성가하온후에 이몸을 자저 아못조록 다시 한번보기를바

라며 단지 축수하기를 바라며 봉제사 점빈객 할사람이라 부대 몸성이 장남하기를 천만번 축수한다 이와갓치 정신업시 춘국이를 생각하며 가는데 별안간 기차가 주춤 멈치면서 썩섯스니 국미차량이 슈대를손에들고 나리더니 크고 큰 화륜션을 태오는지라 널고너른 물에 크고큰 화륜션이 살닷듯떠나는대 그 안에서 보이는것은 파란하날뿐이오 바닥에서 보이는것은 또한 파란하날그림자뿐이라 화륜션을 타보지못한사람은 해는어대서 떠서 어대로지는지 남은어대고 북은어덴지 곳곳마다 살피보와도 알수업시 되엿더라

기차도라고 화륜션도 타며 이삼일만에 동경에 다다라 국미차량의 짐으로 드러갓더라

이때 국미 차량의 나히 오십에 남여간 소생이업서서 주야근심하더니 의외에 옥희갓흔 가인을 만나 일골에 김분빛슬 나타내여

(국미) 이에 옥희야 오날부터 부녀간으로 정하미 웃더하냐

(옥) 예구 망영의말삼이올시다 엇지 천한몸으로 귀공과 부녀되기를 바라겟습닛가

(국미) 허허 그런소리말고 저기안진 부인을 뵈여라 저 부인은 나의쳐되는 사람이니 즉 네게는 어머니다

옥희 국미부부에게 예한후 부녀지간이되여 지내더라
이 옥희는 누군고하니 다동사는 김진사 딸이라

본래 김진사가 남문안 사는 박주사 딸과 혼인을 하여 이십여년에 소생은 남매
뿐이라 장녀는 즉 옥희오 아는 즉 춘국이라
박씨부인이 춘국을 생산 후에 산후증으로 신음하더니 급기야 삼년만에 병
이 심하여 회생치 못할 줄 짐작하고 탄식하여 지내더니 일일은 자기 남편의 손
을 잡고 체읍왈

우리 부부 혼인한지 이십여년에 단지 저 남매를 생산하야 아 못조록 잘 길너서
저와 갓흔 배필을 어더 슬하에 자미를 볼가 하엿더니 이내 병이 회생치 못할지라
단지 슬픈바는 어미업는 저유아를 잘거두어 기를 사람이 업사오니 아 못조록
망쳐의 말삼을 저바리지 마옵시고 남매를 잘 길너 후일 자미를 보옵소서 연이나
후일에 취쳐하시거든 아 못조록 어진 안악을 맛나 저 남매와 합의하여 지내도록
하옵소서 후처가 전처의 자식을 박대하는 사람이 십상팔구오니 되고 안이 되
는 거슨 령감에게 달니 엿사오니 부대 조심하야 망쳐의 말삼을 잊지 마옵소서
또한 말삼할 거슨 옥희의 나히 지금 칠세라 십오세만 되거던 언약대로 혼인을
하옵시고 또 춘국의 나히 삼세라 아즉 말삼할바는 안이오나 십사세만 되거던
저와 갓흔 배필을 구하와 원앙이 독슈에 길드림갓치 하옵소서 하며 목이미여
말을 맞치지 못하고 황천으로 도라간지라

옥희 모친의 손을 잡고 체읍왈 애구어머니 나를 여기다 두시고 가시는 대가 어
대 온잇가 가실 곳이 잇거들나 나고 갓치 갑시다 하며 몸을 열사안고 우는대 춘

국이논 아 못철도 모르고 어머니의 저슬 입으로 물고 손으로 만지며 엄마를 부
른다 엄마 엄마 천만번을 부른들 웃지 대답을 하리오

김진사 염폐셔 그 남매의 경상을 보니 두눈이 캄캄하고 오장이 초초이 쏠어지
는지라 옥희와 춘국을 달내여 위로하고 택일하여 장사를 지내니라

살닷듯하는 세월이 어언간 삼년을 지내니 이제 김진사의 영광이 사십여세라
여년을 호을노 지내거 적々하여 후취를 널리 구하다가 가운데 그릇드러 옥동

막바지 오막사라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안선달의 딸과 혼인을 하엿더라
혼인한지 삼일 후에 옥희 남매를 가장 자기가 나운 자식갓치 아모험점업시 지

내더니 망령이 드럿는지 광증이 드럿는지 미운마음이 나기 시작을 한다

밥을 먹고 자리를 조금만 아니 흠쳐도 구박이요 식부름을 조금만 더디하여도
빛자로 호차기고 그거시 부족하여 머리를 비슬때마다 빗등으로 찌리다가
도 김진사 드러오면 웃지 그리 귀애하는 빗을 얼굴에 닦타내고 알장알장 하다가
김진사의 발자취만 켜나면 한갓갓치 들복가가며 구박을 하더니 그후에는

안방에다 발을 대이지도 못하게 하고 건는 방에다 쥐어 소리도 못하게 남매를
죄인가 두드시 나오지도 못하게 하니 눈치코치 모르는 아해도 눈치를 채일터

인대 하물며 령리하고 썩바른 옥희가 엿지 그것을 아지 못하리요 건는 방에서
춘국을 다리고 망모를 생각하여 지내다가 아버가 드러오면 희색을 닦타내고
아 못조록 아바님의 마음을 편안케 하야가며 조흔 낫츠로 지내다가 아바님이

출입을하시면 여역시 춘궁이와 망모를 생각하며 눈물노 세월을 보내더라
안씨 옥희를 막대라 못하여 나중에는 축출지심(逐出之心)이 나서 시비난향
이로더부러 흥계를 의논한다

(안) 이에 난향아 자근아씨인지 무엇인지 날이 갈수록 보기가 시르니 저거
슬 엇지하면 보지를 안코 한시라도 편안이 산단말이나

난향이는 본래 잔사하고 요악한 기집아해라 이전에는 박씨부인이 잇는코로
옥희남매를 위하야 죽었지마는 지금 당하야는 안씨가 상전이요 세력이 잇는
지라 잔사한 목소래로

(난) 글세을시다 장々하일에 그세를 보시고 엇지내심잇가

(안) 에그 그리하기에 말이다 진작내가 죽어 안보든지 무슨싸닥이 잇셔야
살겠나

(난) 에그 망령의 말삼도하십니다 자근아씨로하야셔 마님이 도라가시는게
무어시온잇가 사위스러운 말삼도하십니다

(안) 그러면 웃더케하난나 무슨영터라를 잡아야 죽이든지 내여쫓던지 하지
안겟는나

(난) 글세을시다 무슨 영터리로 말을하고셔 영감이 아시고도 아모말삼못
하시게하여 내여쫓든지 죽이던지 해야지요 소비의 마음도 이렇케답답할져
에 마님이야 오작하실나구

(안) 에구 말을마라 내가 밤이면 잠을 자는줄 아는야 이궁니 저궁니 하느
라고 벌셔 이십여일재 잠한잠 못자다

(난) 그러면 조흔도리가 잇습시다 이전마님이 도라가실적에 영감씨 민보국
대 도령님과 자근아씨하고 십오세만 되거는 혼인하여 주라고 하신말삼이잇는
대 그말노나 영터리를잡고셔 마님이 무어시라 령감씨 엇쥬고내여쫓차볼가요
안씨 한참 궁니를 하여보더니 웃는나츠로

(안) 글세다 아모리나하여셔 되기만하면 조으련만 무슨일이 말과 뜻과 갓
치되여야지 노쥬양인이 주거니 밧거니 짓거리는데 문잔으로 좇차 기침소
리가 나더니 김진사가 출입을 하였다가 드려오는지라

안씨 건너방으로 급피가셔 옥희를 다리고 김진사를 마져 방으로 드려오더니
가장 옥희하고 이야기나한드시

(안) 오날은 엇지해셔 일죽이 드려오심잇가

(김) 일을것무어시요 전일과 마찬가지로

(안) 그러나 옥희의 나히 벌셔 열다섯살이나 되었스니 혼인을 정하야하
지 안겟습잇가

(김) 글세— 혼인을하야 할터인데 걱정이 만소구료

(난) 에그 걱정이 무어시래요 돈만잇스면 오날이라도하고 내일이라도하지요
김진사드른체 만체하고 옥희를 도라보며

(김) 이에 옥희야 오날은 어머니하고 무슨이야기를 하였느냐

김진사 마음에는 옥희의 나이 심오제라도 일이제된 어린아해갓치 응석으로 만 알고 무슨말이든지 하는대 안씨는 자기가 한지시잇셔서 가삼이 덜걱내려 안씨를 저년의 입에서 무슨소리가 나을지몰나 옥희가 대답하기전에 독기는 을 썬서 옥희를 흘겨보며 가장어엿분체하고 김진사압흐로 다가안지며

(안) 이야기가 무슨이야기요 바나절 가라치고 글가라쳐 주었지요

(김) 허허 그러치 글을아못조록 잘배와야 하는이라 이에 옥희야 오날 어머니한대 무슨글을 배웠느냐

옥희게모의 눈을보니 조곰만말을 잘못하였다는 무슨벼락을 마질는지알슈 가엿는지라 속마음에는 아바님이 귀해서 하시는줄아나 배인 글도엿고 무어 시라 대답할바이업서 머리를 슈구리고 주춤주춤 물너나와 건넌방으로 건너 온지라

안씨 그쌀을 그리 애지중지하는 모양을보고 더욱이 심사가 좇치못하여 자기 남편을 목쭈머니를 밟들어 옥희에매한 소리를 지어낸다

(안) 여보 령감이 출입을하시면 내방에 건너와서 이야기도 하고 바나절도 가랏쳐달나 하는대 령감이 출입을 하섯다가 드러오시면 번々이 제방으로 건너가니 이상한일도 만아요

(김) 허허 그렐리가잇나 내가 귀애쭈지않는사닥에 내압해 잇기가 어려

와서 그리하는거시지 무엇시 이상하단말이요

(안) 그러나 저러나 애기하고 어려슬때에 정혼한집이 잇소

(김) 왜 그소리는 뉘게드렸소 정하여 둔집이 잇지

(안) 뜻기는 뉘게드려요 집안사람에게 들었지

(김) 집안사람이라니 난향이 말이요

(안) 난향이요 예구 난향이가 행여나 그런말을 내게다 하겠소 바로당자가 그리합되다

김진사 속으로는 자기부인의말을 이상히아나 것흐로는 웃는낯흐로 하는말이

(김) 허허 당자가 그리할리가잇나 공연한 소리지

안씨 안색이 발개지며

(안) 그러치 언필칭 내말은 모도 거짓말이라지 연고로 남의 게모노릇하기 가어렵다는게야 예구 이년의 신세를 무엇에 쓴단말인가

(김) 허허 공연이 화를내고 그리는구료 누가듯던지 정말노 듯겔소

(안) 을소 오라 어셔가셔 옥희의말은 모도 정말노 아시고 내말은 모도 광 언으로만 아시오 좇소 조아 고년이 제어미가 아니라고 부부간에 이간을 시키는거시야

하며 어대셔 등대하였든것가치 눈물이 비오듯하며 우는지라

김진사 안씨와 혼인한지 불과 칠팔년에 엇지애정이 깎퍼던지 헤어나지 못하

여상도 못짜지 짜지여서 어름어름하며 안씨의 허리를 만지며

(김) 아—여보이게 무슨모양이오 하인이 보던지하면 슈상이알니다
(안) 흥—응—……………

(김) 글세 고만곳치오 인제는 부인의말이라면 괘으로 메주를 쑨다고 하여
도 정말노알터이니 고만곳치오

심벌지목 업다고 한번 찍거보고 두번 찍거보니 개개이 찍거지는 심으로 김진
사가 안씨의 말이라면 소금섬을 여울물노 썰나하여도 썰만하게 되엇더라
김진사가 안씨의마음을 임의짐작하것마는 지이불행(知而不行)이라고 날마다
소래를 질너 말을하자하니 점자는집안에 남우세만 할터이오 조용이라—이
르자하니 그 잇는날이면 으레이 옥희를 구박을하며 싸리는지라 화가 하로도
열두시에 나건마는 그화를 차탈피탈 참고 착앗더니 김진사의 마음에는 모든
사람이 옥희만 구박하는것갓고 집안은 내주장이 되엇더라

안씨에게 상투뚫짜지 짜져서 치신을 이론이상에 하로잇들내로 그 상투를 건
지며 그치신을 엇지 차리리요 매일 술노만 조석을 지내며 옥희나 춘국이니
도모지 아른체도 아니하고 장근오륙삭을 쉼새업시 먹더니 급기야 울화에 주
체를 겸하여 병이되더니 불과슈삼일내로 위중하여 아주 부지세상(不知世上)
이되엿도다 다만 슬프고 가련한사람은 김진사라

안씨의 마음이 본래 흥하기는 하지마는 자기령감이 무슨병이든지 심입골슈

(深入骨髓) 하여 명재경각(命在頃刻) 하엿스니 이삼첩 쓸약이면 오륙첩을 모
라쓰고 썰낭썰낭 다니면서 한시밧비 회생하도록 할터이지만 가장 자기령감
을 위하여 두세첩쓸약이면 빈속에 모라쓰면 취지여 못쓴다하며 천년만에 한
첩식대려 먹인거시 병든지 오륙일만에 겨오 두첩썰이오 단지 잇는마음은 옥
희의 축출지심(逐出之心)썰이라

옥희남매 부친의 방으로가서 문병코자하족 안씨가 눈을 부라리며 이에 너의
아바님병이 위중하신대 지금 너의 남매가 문병을 하고보면 도리어 병인에게
는 얼마큼 해로운거시 저모양에 어미도 업는 너의남매를 보실것갓흐면 자연
비창한마음이 속에서 소사나실터이니 그리고보면 병을도아 명을 재촉하는것
과갓흐니 내일이고 어는날이던지 차도가잇는때에 외와도 너나할거시니 방으
로 드러가라하며 문을 다다겔고 나오지도 못하게 하는지라

옥희남매 손을붓잡고 어두운방에 눈물을 흘녀가며왈

(옥) 이에 춘국이 아바님이 전생에 무슨죄가 만으사 저와갓튼 흥녀를만나
운명하실때에 우리남매를 보시지도 못하고 도라가시겟구나 예구에구셔려
서 죽겟네 우리남매를 나가지도 못하게하니 무슨약을 드리는지 답답하여
사람이 죽겟네 아바이러한집에서는 이전 화타편작(華陀扁鵲)갓흔이가 슈
만명 슈천명이 잇셔도 소용이 업겟다 하며 방문을 박차고 나오니
슬프다 옥희남매가 고생을 한창 더하게 되느라고 김진사가 회생치 못하고 영

수복망산으로 갔도다

옥회 — 대성통곡하여 시신을 어루만져 탄식할 에구

이몸이 전생에 무삼죄가 이리 지중하여 철세에 어미를여위우고 금년 심륙세
에 아바님의 상사를 당하오니 이런 극통한일이 또 어대또잇사오릿가 단지한
탄할바는 내가 남자로 태어나드면 오늘날 이지경이 아니될거슬 엇지라 녀자
로태어나노 출국아 아바님 모시고 나아가서 어머니께 엇주어라 어머니도
라가신후 오늘날까지 밥한술 달개먹어본적이업고 어느날 눈물을 안이흘니는
날업서 어머니를 생각하옵고 지내옵다가 줄지에 아바님 상사를 당하오니 누
구를 바라고 살길이업는중 불칙한 계모의 흉계를 아지못하오니 부대 우리남
매를 다려가옵시사고 엇주어라 하며 통곡기절하였다가 출국의 구원함을업어
이삼시만에 처여나서 택일하여 선산에 안장하고 출국으로더부러 적々한빈방
에서 부친과 망모를 생각하고 눈물노 세월을 보내더라

안씨 김진사 도라간후로 부모도업는 옥희남매를 적이나 지식이 잇는 사람갓
흐면 꺾박도 안이하고 불상하여서 위로를 하여줄터인데 엇지된 심장인지 자
기남편이 도라간것을 조곰도 섭々이알지 안코 그날부터 생선으로 철것갓흐
면 회 — 철것갓치 생가가나서 도라다니며 옥희를 처복듯 콩복듯 달달 복그니
웃지 살기를 조아하리요

옥등 막바지 안선달집이 운슈가 띄여서 김진사집과 혼인을 하였도다

김진사 도라간후로 안선달 부자와 그 오라비 재덕이를 기탄업시 자기집처럼
다려다두고 단지 옥희남매 잇슴을 근심하야 주야 공론이 엇지하면 우리집안
식구만 오부시 지낼의론이라

(안) 이에 재덕아 엇지하면 옥희남매를 업재고 우리집안식구만 오부시 지
낸단말이나 내가 성이가서서 십년살것이면 단 일년을 못살갓다

재덕이는 본래 그런일에는 발벗고 먼저나스는 사람이라 누의에 마음이 합당
하도록 하느라고 흥정을 켜다

(재) 허々 차々보아 하시지요 무엇이 그리 급하오릿가

(안) 아 — 차々보아 하는것이 무엇이냐 내게 당하여는 하로가뵈분대 되고
아니되기는 네 수중에 달렸스니 어서 하로뵈비 하여보자

(재) 정 그러실것갓르면 한가지 하는수가 잇는대 누님이 그리 하실난지요
안씨는 재덕의 말을듯고 얼골에 김분빛을 띄우고

(안) 아 — 할수만잇스면 듯다썤야야 아뭇조록 감씩갓치 하였스면 작히나
조으랴 엇지한단말이나

재덕이 누의의 대답하는것을듯고 누의에 압흐로 닥아안지며 귀에다 입을대
이고 무엇이라고 소근소근 한참을 하더니 안씨가 연해 생글생글우스며 온야
온야 글냥 염녀마라 그러면 오늘날밤에 그리하자 약조를하고 미다지를 열더니
시비 난항이를 부른다 이에 난항아……………

난향이 영니하게 대답을 하고 방으로 드러오며

(난) 네! 마님 부르섯습닛가

(안) 온야 이리 갓가히 오니라 옥동셔방님이 여차〈〉하자고 하시더라
난향이 안씨의 말을듯고 생글〈〉우스며

(난) 에그 조아라 그러면 날자는 어느날이오닛가

(안) 올치 이것보다 날자를 아니일너주엇네 오날밤이란다 찌드지마려라

(난) 에구 망령의말삼도 하십니다 소비가 언제라 무삼일을 경소리 하얏습
닛가

(안) 암 그러치만 혹 이야기 하지말난말이다

이와갓치 약조한것은 단지 삼인만알고 다른사람은모르는데 수풀에안진새맘
갓치 밤낮 조심을하고 잇는 옥희 그때는 무엇이 식이든지 계모가 난향이 부
르는 소리를듯고 마음이 절로 이상하여지고 가삼이 덜걱 내려안지며 일신이
떨이는지라 이전에는 노쥬간 무슨말을 하든지 엇듯지를 안타가 이때에는 옥
을 당하고 죽지 아니하려고 엇드렸든지 노쥬 양인이 소근소근하는데 자셰이
는 아니들녀도 들은들은 들니는소리 오날밤이면 자괴를 재덕이가 욕을 보이
다가 숲종치아니하면 죽인다 하는지라

엇지해 그 소리를 드러던지 일신이 떨니고 발이붓혀서 촌보를 옮길수가 업
는지라 억지로 방으로 드러와 춘국이를 리별하고 룡산로들강(龍山驚梁津)에

싸지엿더니 그때 국미 차랑이 건지엿더라

안씨 재덕이와 난향이로더부러 그날밤에 옥희를 죽이려고 해만지기를 기다
리는대안씨에게 대하여는 한시가 열시갓치 더딘것갓더니 어언간 해는너머가
고 동령에 달이듯은지라

춘국이는 어대로 보내고 옥희혼자만 방에다 두려고 안씨 춘국이를 다리려
드러오니 옥희는 잔곶업고 춘국이 혼자안져 눈물을 흘니는지라 겁이 더러나
서 춘국에게 무려보니 어대를 갓는지 밥도 허둥지둥 먹는체하고 나아갓습니
다 하거늘 안씨 눈이 벌겍 뒤집혀서 룡간대청을 발노다 굴으면서 난향이를
부르더니 모든일을 난향이에게 모라붓친다

(안) 이에 난향아 자근아씨가 어의로 다라낫구나

난향이 열골에 놀난빛을씩우고

(난) 네! 자근아씨가 어의로 다라낫세요 그렐이가 잇겟습잇가 집안에 잇
겟지요

(안) 에구 집안에 잇는것이 무어신야 도령님이 올면서 누이가 어대로 다라
낫다고 나를보더니 더 설게올더라

난향이 벌떡 이러스며

(난) 그러면 알는 서방님씩 드러옵시사고 하여야 하겟습니다

(안) 올타 알는 드러옵시사고 하여라

난향이 사랑으로 나아가서 옥동서방님을 다리고 드러오니 안씨 재덕이를 보고 반자가 낫다고 뛰면서 하는 말이 이에 재덕아 옥희가 어디로 다라났단다 재덕이는 본래 성미가 급할때는 급해도 느리지기 시작을하면 할량업시 쇠불 알갓치 아주 느러지는 성미라 허허우스며

(재) 누님은 무슨일이 조곰만 잊셔도 저리 급히 소동을 하시드라 제가 다 라나면 오늘날밤으로 만리를 가갓습잇가 천리를 가갓습잇가 공연히 찌드자 마십시오

(안) 공연이 찌드는거시 무어신야 차절바에는 한시박비 얼는 차져야저어 대로 멀리 간후에 차지려면 서로 성가시지 안이하냐 어서 좀 차져보아라

(재) 글세 저리 애를쓰시고 차져서는 무엇하심잇가 제풀에 다라난거슬 누가 무어시라고 하갓습잇가 고만두십시오

(안) 예구 아니 차젓스면 조치마는 다른사람이 누가 무던하게 제풀에 다라난줄 알듯하냐 찾지도 아니하고 모른체하면 의론이 오작 흥하게 날줄아 나 사람의일은 알수업스니 부대 차져보아라 내가 고년을 보고심히 찾는것도 아니요 불상해서 찾는거시 아니라 단지 우리삼인이 애매한 소리를듯지 안도록 하려고 찾는거시다 그러하니 아모조록 하로박비 차져보아라

(재) 글세을시다 그도 그러하려니와 돈이나 만히 주십시오

(안) 글낭 그리하여라 하며 철괴를 열더니 심환자리 지전두장을 내여주는

지라 재덕이 바다가지고 그밤으로 나와서 차져다니나 종적을 알수가업서 서길에서 밤을 발키고 그잇튼날 우연이 남문정거장을 나아가서 서성々々 하노라니 이때는 부산가는 급행시간이라 눈결에 얼는보니 옥희가 일인하고 황망이 차를타는지라 붓자불수업고 말할수업서서 그대로 저만 본체만 체하고 집으로 도라와 누이를 대문에서부터 부르며 드러오더니 마루에가 펼쳐 주저안지며

(재) 예구 누님 내말삼 드러보십시오 참 이상도 합디다

안씨 하동지동 하든일을 집어치고 나오면서

(안) 그대 잘단여왔나나 찾지를 못하였나보구나 무어 이상하단말이나

(재) 아 내가 그날밤에 나가서 사면으로 차져단이다가 그잇흔날 우연이 남문정거장을 나갓섯더니 옥희가 일인하고 전전부터 상관이잇섯는지 부산가는 급행차를 황망히 타고가기에 나만 썩々이 보고서 드러왔습니다

(안) 그러면 이사람아 거기서 내게다 전보를하고 돈을 달나하여 좇차가보지 그대로 온단말인가

(재) 아 그러면 그대로오지안으면 그자리에서 다리고 올수가 잇습잇가 그래서 썩々이 보고만 왔셔요두말마십시오 잡아오든 죽이지못하거든 내손톱에 장을지십시오

(안) 예구나는모른다 내집안 모양이 되고아니되는것은 네수중에 달렸스

니 마음대로 하여라

(재) 네! 누님이 내게다 그와갓치 위탁을 하시는바에 범연이 할리가 잇겟슴잇가

(안) 암 그랬코말고 다시 할말이 잇겟느냐 마는 우리 삼인이 한말을듯고서 다라 낫는지 누가 흥괴를하여서 다라 낫는지 이상한일도 다보겟다 네입 내입에 서아니나왔스면 필연코 난향이 지 재덕이 본대 음흉한사람이라 적々하고 올적할때에 난향이를 감언이설(甘言利說)노 썩여도 차탈피탈하고 말을듯 지아니하는고로 엇지하면 손아귀에 들도록할고 오때불망하든차에 이러한 괴회를타서 제수중에다 집어너으라고

(재) 글세을시다 그래도 누구든지 흥괴를하여서 도주를하였슬터이지 제가 이인이나 영웅갓치 짐작하는일이 잇겟슴잇가 단지 의심나는거시 난향이오 니 조용이 무려보옵소서

(안) 올라 잇다가 밤에 조용이 달내가며 무려보아야 하겟다

(제) 자 그러면 나는 사랑으로 나가겟습니다 하며

재덕이는 사랑으로나가고 안씨는 난향이를 부른다 이에 난향아 이리드러오 너라 난향이 대답하고 안씨겿테 안지며

(난) 네! 무슨슈가 낫슴잇가 옥동서방님이 단여오시드니 웃지되었슴잇가 (안) 수가 무슨슈나 칠팔월에 옥슈슈나 이상야릇하여 말도못하겟다

(난) 에구웨! 그리심잇가

(안) 허々 그것참 이상하여 일인하고 내지로갓다는구나 저를 장차 엇지하잔말이나

(난) 에구 이상도하지요 일인하고 은제부터 아랏나봅니다

(안) 글세다 이런말을 누구더러 행어나하지마라

(난) 에구 마님썩서 망령이 때々나시나보이 언제라 소비가 입을그리 재게 팔낭팔낭 놀니엿슴잇가

(안) 그러면 아니놀이엿서 이번에 옥희 다라난것도 모도 네죄지

(난) 에구 마님도 애매한말삼을 작작하십쇼하날이 내려다보십니다

안씨 난향이를 사설도하였다가 달내기도 하였다가 가진소리를 다해가며 중정을 썩셔본다

(안) 아니다 불어그리하였지 정말노 그리할리가 있나 그러나저러나 옥희가엇지알고 피신을 하였는지 알슈가업더라

(난) 글세을시다 소비도 그말삼을 맛참 마님썩 엿주어보라고 하엿습니다

(안) 그러나 그때에 알고잇기는 우리제시만 알지아니하였나

(난) 네! 그러치요 그말삼은 쥐도 새도 듯지를 못하였는데 고날 맛참 공

교이다라낫세요

(안) 그리게말이다 암만생각하야도 알슈가업스니 너좀 생각하여보아라

(난) 예구 소비가 무어슬 안다하기로 마님만큼 짐작을 하겠습었가
안씨는 난향을 의심을두고 하는말인데 난향이는 제죄가 업는고로 아모싸닭
도아지못하고 이전과갓치고 지식하게 진담으로만 하엿더라

(안) 이애난향아 옥희다라난 싸닭은 영한장님에게 무려불만한 일이아니나
(난) 글세을시다 장님이나 무당에게 무려보아쓰면 조출듯합니다

(안) 이애무려보앗다가 아니할말로 네임내임에서 나왔다면 그일을 엇지
하니

(난) 아! 아니한 사람더러 말하엿다면 영할거시 무엇시온닛가 대관절무
러보앗스면 조출듯합니다

(안) 글세 무려보기는 어렵지 안치마는 당장 당々한거슨 뉘임에서 그말이
나왔는지 이상도하다

난향이 안씨의 말을드르니 정영교저를 의심내는 모양이라 급한마음대로 하
엿스면 당장 장님을 불너무려보고 십지마는 칼자로잡은 사람과 칼날잡은 사
람심이라 눈물을 흘리며

(난) 마님씩옵서 소비를 펴연 의심을 두시는듯하오니 십년이나 압혀서 부
리옵고도 소비의 마음을 아옵지못하심잇가

(안) 아! 내가 너더러 무어시라고 하엿더니 도적이 제발이져리단 심으로
내가 옥희의게 통괴를 하엿나보구나

난향이 백주에 애매한 말을드르니 어이업고 기가맥혀 눈물을 뚝々흘리며 혼
자말노고년이 어대로가서 급살을마져 죽기나하엿나 노주잔에 마음만 잠시
간이라도 상하게하니 다라나려거든 그전에나 가거나 일인은 원사람인고 고
년하고 눈이마져 다라나거든 진작이나 도주를하지 공교하게 그날밤에 나가
자 옥동서방님이 남문정거장에서 만나보앗스니 애매한 나만 죽게 하느라고
예구 고년을 잡는날이면 내가먼저 살점이라도 지금생각을하고 보든정 아든
정업시 쓰더먹을 터이야 령감이 생존하여 기실적에 우애 혼인을 아니하셋노
또 출궁이가 살아잇스니 조것때문에 또 무삼 애매한말을 드를는지 팔자사나
온년에게난 구설나게 차레 오는거시업셔 이와갓치 신이야 녀이야 한참을 하
더니 제방으로 나가는지라

아씨 난향이 울며 하는말을 드르니 엇지드르면 난향이 말을하고도 시침이
를 빼는것도갓고 웃지드르면 안니한것도 갓흔지라 길단 장죽을물고 사랑으
로 나아가서 재덕이와 또 흥계를 의론한다

(안) 이애 재덕아 지금내가 난향이더러 무려본즉 아주 펴져 뉘면서 애매
하니 웃저니하며 눈물을 흘리며 울더라

(재) 예구 누님또 싹도하시오 고년이 앙칼스럽게 제가 말을하고도 생파락
을 빼는거시지 누님의게 정이드렀다 하기로 이전 박씨에게다 대이갓소 누
님은 몇해동안 압혀서 심보럼만 식이실뿐이지 실상 무슨정이 그리깊히 드

릿단말이오 한편으로 생각하면 첫정이 재일이라고 옥희하고 난향이는 한
형제와 갓쳐 자랐스니 그거슬 미루어볼지라도 환연이 알만하지 안습잇가
(안) 을치 그도 그러하다 나는단지 압해서 시종만 식일뿐이지 실상은 한
번도 다정이 한적이업서々 에구 분해라 내고나고만 알고서 그일을 하고
그너々히 될거슬 그년에게 도리혀 통괴한 셈이로구나 지금이라도 난향이
를 불너서 다시 한번 무려보자하며 미다지를 벼락갓치 와락열고 난향아
々々々 사랑으로 드러오너라 두어번 부르니
난향이 웃슬모도 벗고 누어자다가 마님이 화를내여 부르는소리를 듯고 업
든겁이 절노나서 거듬々々 웃을주어입고 안씨압흐로 드러가니 안씨눈이
실죽 하여지며 볼호령이 내린다

(안) 아! 누구든지 부르면 얼는드러 오는거시이니라 너할것다하고 가진
거드름 다부리고 인제드러오니 급한 심부름은 너해서 식이지 못하겠구나
세살적마음이 여든짜지 잔다고 어려서 매기를 몹시배와셔 그모양이지 이
전 마님께 하든버르장이를 안이곱게 내게다하니 에! 보기실타 하며 문을
도로 닫거늘

난향이 겁이나서 매무시도 다못하고 쌀니드러오니 말서 제사가 그릇난지라
창문밧헤가 쪼고리고안져서 눈물을 흘려가며

(난) 마님々々 죽을죄라 잘못하였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고단하기로

웃슬벗고 자옴다가 마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듯삽고 천지도지 뛰여드러와
습니다 그저이번 한번만 통촉하여 주시면 차후에는 다시 그러할리가 잇겟
습잇가

안씨는 드른척 만척하고 재덕이와 이야기를 하는데 재덕이 손으로 누이를
지긋々々하여 귀에다 입을대이고 무에라々々々 한참을 하더니 안씨는안으로
드러가는지라

재덕이 난향을 정신업시 건너다보며 음흉한마음이 나왔다

(재) 이에 난향아 날더러만 말을하여라 옥희에게 통괴를 하였거든 하였다
고 하려무나 그다지 심하게 우길거시 무어시나

(난) 에구 서방님쫓차 그리시는구료 아니배인 아해를 나옴이라고 하시지 백
주에 애매한 말삼을 하심잇가

(재) 아! 정말아니하였니 그리지말고 바로말을 하여라 우리 두리야 무슨
말을 모하겠나

난향이 재덕의 음흉이 하는말을듯고 안새이 발개지며

(난) 에구 망척하여라 서방님이 말삼도 이상이 하십니까

(재) 허허 망척한거시 무어시나

(난)

재덕이난 난향의 손을 잡으며 압흐로 다가 안더라

(재) 이에 난향이 나를 좀 보아라

난향이 임의 재덕이에 흥축한 마음을 아는지라 손목을 썩르치며

(난) 예구 왜 이리세요 마님 나오십니다

(재) 왜 이리는것시 무어신나 내가 너를 보라고 슈삼차를 패들썩도 요리조리 핑계를 하엿지 이번에만 막 무가대하라 마님도 임의 아시고 틈을 비여 쥬섯스니 웃절수잇나나 만약 말을 아니 드를것갓흐면 마님씩엿주어 단々이 속일터이다

난향이 얼골빛치 발개지며

(난) 아! 서방님괴셔도 이전책도 만이보시고 이전 이야기도 만이 드르셨지요

(재) 암 보고 듯다썤인야

(난) 그러신 량반이 이러한 더러운 말삼을 하심잇가

(재) 더러운 말이 무어신야 영웅열사도 이런일이 비일비진데 엇더담말이야

(난) 서방님 말삼이 영웅열사도 이런일이 잇다고 하섯지요

(직) 그래

(난) 그렇게 말삼하실것갓흐면 하향천기 춘향이도 일 부종사 헛단말이잇습니다

(재) 이에 그말조라 춘향이난 춘향이고 난향이난 난향이지 별슈잇겟나나

(난) 우애 저난 춘향이 지조만 갓지 못한가요 죽을지언정 이리케난.....

(재) 이리케 허락을 아니하면 엇더케한단말이야 아쥬백년을 거문머리 팟부리갓치 되도록 살겟나나 허락을 한단 말이지

(난)

(재) 글낭 염녀마라 나도아죽 미장가요 너도아죽 출가전 처녀로구나

(난)

(재) 말이나 시원이하여라 무어시든지 너 하자난대로 할거시니 소원에 말을하여라

난향이 생각하여보니 요피부득(要避不得) 웃절수 업는거시 이전에도 두어번 핑계하기를 혹 저혼자자는데 방문도 두다리며 문을 열나 하는거슬 아주 모르는체하고 잇다가 나중에 심이 혼들며난 뒤창을 열고나와 안으로 드러가셔 마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하며 인해늘너 마님을 모시고 그밤을 지내가며 모면도하고 그러치안으면 금음철야에 일부러 등불도 업시 무어슬 사셔오나라하여 심부름을 보낸후에 노중에 먼저와셔 덤석안으며 말도 크게못하며 조르난거슬 가진소리를 다하여가며 오날까지 피해왔난대 지금당하여 무어시라고 모책할바이 업난지라 얼는생각하기를 이리하여서 만약 서방님이 허락을허실것갓흐면 나도웃지 할슈업다 좌우간에 말삼이나 하여보리라하고 고개를 숙구리고 목소리를 나죽이하여

(난) 네! 서방님이 그렇게 말삼을 하시니 두어마디 엇쥬어보을 말삼이잇

습니다 말씀이 다름아니오라 양반이나 상한이나 마음속이야 다르겟습잇가 재덕이 난향의 대답한거슬 보더니 입이 귀싸지 찌져져서 너럴우숨을연해 우셔가며

(재) 허허 그러치 다시할말인가 마음은 갓홀터이지

(난) 네! 그럴것갓흐면 서방님씩옵셔 잠시 소비를 다리시고 일시한때 탐화봉접(貪花蜂蝶)갓치 지내실것갓사오니 지금 서방님 말씀을 순종하옵고 보면 후일에 이몸이 개밥에 도토리갓치 천하게 될터이오니 암만 생각하와도 순종치 못할가하나이다

(재) 이애 그러면 앓가말갓치 너의소원을 푸러주어야 허락을 할터인야 재덕이는 중인이요 난향이는 상한배라 난향이 재덕이와 혼인갓하면 후일에 재물이 귀중할지라 얼굴에 화색을 낫라내고

(난) 네!

(재) 그러면 네 소원의 말을하여라

(난) 네! 소비의 소원은 다름아니오라 지금 서방님씩 허신을하오면 황송하오나 한백년 모시고 지낼가하나이다

(재) 허허 글낭 그리하여라 진작 그런말을하엿드면 나도 좃코 너도쫓앗지 무슨사닥인야

(난)

(재) 왜! 또 무어시 미진한거시 잇셔서 말을아니하는나

(난) 미진한거시 아니오라 서방님 말씀이 한백년 지내자하섯스니 차후에 귀밧덕리 맛푼 부인이 엽사오면 섭섭지 안으시겟습잇가 그러하오니 오날은아모리 지내드래도 후일에 확실하게 증거가 됴직하도록 두어자적어주시면 조을듯합니다

재덕이 당장에 볼것흔 욕심이나난고로 나종일은 일호도 생각지 아니하고

(재) 허허 그리하여라 지금은 이전과 달나서 가문보고 지체보고 혼인을아니한다 염녀말고 지필을가져 오너라

란양이 연상을 다가듯코 섬섬옥수로 검은먹을 담삭집어 한참을 잔 연후에 지필을 내여 서방님을 주니

재덕이 주지퍼서 서판에 박쳐들고 무심필 중동푸러 검은먹을 덤씩씩어 오른손에들고 난향이를 눈이 잔좌곤향이되여 흘금흘금 쳐다보며

(재) 이애 난향아 네가 한문은 모르고 국문을아니 군문으로만 슬가

(난) 생각대로 쓰십시오

(재) 그러면 무어시라고 쓴단말인가 모양은 혼서지와 갓흔데 증거셔라한단말이나 약증셔라 쓴단말이나 모르겟다 아모케나 쓰자하며

줄줄내리갈기여 것침엽시 써셔주거늘 난향이 바다보니 하엿스되

서증약

우약증서난 다름이 아니라 금야 악수결혼(握手結婚)한 사건에 대하여
후일에 양인간 이론이 유하난시에난 차약증서로 증거함

모년 모월 모일

안재덕 師

김난향 (소장)

난향이 보기를다하고 착々접어 싸고싸서 바지고름에 단단이 매인후에 악수
결혼을 하였더라

재덕이 난향으로더부러 그날밤에 혼인을 낭자이 지내고 새벽에 이러나혼자
생각을 하여보니 부모에게든지 누의에게든지 무어시라고 말할바이 업난지라
난향이를 혼드러써여 나란이 안진후에 웃난낫츠로

(재) 이에 난향아 마님이 암만하시드래도 이러한 기색은 뵈이지를 마려라
난향이 얼골에 붓그러운 빗흘 썩우며

(란) 네! 그럴리가 잇겟스잇가 내가첫재 붓그려와서도

(재) 붓그려올거슨 업다마는 아죽은 이전처럼 지내잔 말이다 응

(난) 네! 아라 드렸습니다

하로밤 사이에 무슨정이지 그리급히 드렸든지

(재) 오날은 일즉이 이러나서 고단할듯하니 네방에 나아가서 편이누었스
럼응

(난) 에구나는 고단치 안습이다마는 서방님이 고단하시겟지요

(재) 자! 그러면 너도나가서자고 나도 누어서 자겟다

(란) 네! 어서 더 주무십시오

란향이 제방으로 나와서 바지선에 매엿든 약증서를내여 열번 스무번 보고
또 본후에 함속에다 킁킁々々너어두고 안으로 드러가니 안씨 란향을보
고 눈우습을치며

(안) 이에 란향아 오날은 꿈에 무엇이 보이든야 부르기전에 네골에드러오
니 별일도 만라

란향이 안씨가 눈치를 채운줄 알고서 얼골이 붉어지며

(란) 에구 이런때도 잇고 저런때도 잇습지요

(안) 암 그야 그러치만 십년이나 지내도 오날갓치 일즉이 드러오는것은쳐
음보아서 하는말이다

란향이 얼는 돌이여 말하기를

(란) 네! 그런데 아니오라 새벽에 우연히 잠이쳐여지기로 이생각 저생각
하다가 인해늘너 드러왔습니다

(안) 허々! 이상도하다 내역시 잔밤에 별생각을 다 하느라고 잠한잠 못자
고 뉘박이 발키엿다

(란) 에구 마님은 무슨생각을 하섯습잇가 소비도 생각한것이 만습니다

(안) 내야 무슨생각을 아니하겠니 잔밤에는 옥희를 잊지하면 잡을고하며

생각을 하여보니 절대덕 잡지 못하면 아니 될 것이 우리 삼인이 애매한 소리를 무수히 듯겟드라 아뭇조록 잡아다가 일가 친척을 모은 후에 규중처녀로 일인하고 눈이 마져 밤사이에 도주하는 것을 우리 서방님이 차져 왔다 하며 내여 쫓는 것은 당々 하지 마는 저렇게 제절로 나간 것을 어는 무던한 삼람이 그렇게 말을 하겠느냐 공연히 아지도 못하고 나만 욕을 할 것이 제가 나가는 자식이 아닌고로 구박을 하여 쫓찬나니 매를 너무 쓰려 매에 못이기에 나가는 나니 남의 말 하기 조아 하는 사람들이 아모속도 모르고 정말은 한마디면 열마디식 보래셔 오작이나 잘들 하겠는나

란향 가장 아양을 부리며

(란) 에구 그런 말삼은 하시지도 마옵소서 마님씩옵서 다른사람 께 모처럼 시럽시라도 자근아씨를 때려를 보섯습잇가 어엿시 쑥짓기 한번을 하섯습잇가 공연이 그리지마옵소서 다른사람이 드르면 이상이 알듯합니다

(안) 누가 아니 나는 저한테 하느라고 하엿지만 고년이 업는고로 애매한 소리를 하기로 발명할데가 어데잇겠는나

(란) 에구 소비가 살아잇는대 아모리기로 마님한분이야 발명하여 드리지 못하겟습잇가 아모염녀 마옵소서

(안) 허々 시럽슨년도 만타 너 갖든 것이 오백이면 무어슬 한단말이야 듯기 실라

(란) 에구 저리시네 여럽슨 버레가 장판방에서 모로긴다고 누가 암잇가 하々

(안) 이에 그러면 도흔도리가잇다 네말에 나무를 쟈부면 썰리채 빼인다고 말듯기는 일반이니 춘국이 마저……………

(란) 글세을시다 서방님하고 의론을 하여보십시오

(안) 글세다 서방님하고 의론은 의례이 하려니와 내가 잔밤에 마님씩 쑥지람을 듯삽고 엿지하면 자근아씨를 잡아다가 이애매한 소리를 버셔바틸고 생각을 무수히 하엿습니다

안씨가 란향이 생각 하엿다는 소리에 귀가 반짝씩여서

(안) 그대 생각은 엿더케 하엿니

(란) 네 생각은 하엿습니다만는 옥동 서방님이 힘을 쓰세야 하겟세요

(안) 그대 서방님이 힘쓰기 못하면 빈틈업시 된단말이냐

(란) 네々 빈틈업고 말고요

(안) 그러면 작히나 조호라 답々하니 이야기나 하려무나

(란) 그런데 이일이 돈이 좀 만이 드러야 하겟습니다

(안) 돈은 다 소잔에 성사되기 못하면 너는 집사 주고 속양하여 주마

(란) 그런데 엿지하면 될듯도하고 엿지하면 안될듯도하와요

(안) 되든 아니되든 말이나 하려무나

귀신듯는데 석말하는 심이요 무당듯는데 곳말하는심이라 란향이 집사주고 속양하여 준다는말에 귀가반짝 씩이고 정선이 밧삭나서 그말을 칠팔월 박과 갓치 든것이곳치려고 연해재우뭇는다

(란) 마님이 말삼을하여 되기곳하면 집을정영 사주세요

(안) 암— 그러치 성사되기곳하면 집사주고 속양하여주마 점잔은 체모에 너를 다리고 실업슨 말을하겟느냐

(란) 암— 그러시겟지오 서립슨 말삼이야 하시겟슴잇가 마님씩 엿주을 말 삼은 다른말삼이 아니오라 이러한 말삼이올시다하며

안씨 귀에다 입을대이고 무엇이라고 한참을 소근々々하더니 안씨에 얼골에 는 희색이 나타나고 란향이는 입을 방글々々하며 사랑으로 나와서 재덕이를 다리고 드러오더니 안씨는 춘국이 모해할 말을하고 란향이는 옥희모해할 말을하며 삼인이 약속을 하엿더라

이때에 춘국이가 누의를 졸지에 생리별을하고 빈방에 홀노안져 눈물을 흘니 며 하로 두때나 한때주는 밥을먹으나 생목숨을 씌치못하여 억지로 먹을재마 다 누의에 생각이나서 그밥을 목이메여 먹지못하고 눈물만 흘니다가 번번 이 밥상을 그저내여보내고 조상석 참예마다 그— 슬게우는것은 목불인견(目不認見)이라 이렇케 지내기를 잇태나 수심으로 지냈스니 그 용모와 괴질이 엇더하리요

하로는 침상에 누어 누의를 생각하며 슬픈을 이기지못하여 혼자 한탄을하는 데 비몽사몽간에 누의 도화 양업에 준주갓흔 눈물을 쌍으로 흘니며 왈 이에 춘국이 내가너를 빈방에 적々이 바리고 갈적에 이내 심장이야 엇더하엿스 라 단지 녀자에 좁은마음으로 널니생각지못하고 죽기로 작정을 하고나와서 어는 강인지 아지도못하고 풍뎡 싸지엿더니 의외에 그강 근지에 사는 내지 인을 만나 지금 동경와서 공부를하나 그리하나 너의 사생을 아지못하여 주 야궁금이 지냈더니 천々만 뜻밖게 아번님이 너의 소식을 전하여 주시니 얼마 큼 마음이 노이나 그리하나 엇지 확실하밧으리오 요사이 춘몽이되여 그러한 지 싫마다 대단히 이상하니 부대조심하야 지내여라 이번에 너를 보고가면 은제다시 볼는지 알수업다 예구……서러 우름소리 한번에 옥희는 잔곳업 고 그 우름소리에 춘국이를 켜이니 몸이 식은땀이 비오듯하며 소름이 죽죽 썩치는지라 춘국이 누의에 사생을 역시아지못하여 주야 근심하더니 그밤에 그와갓치 꿈을 쉰 이후로 단지사라 잇는근심은 이젧스나 도리어 누의를 엇 지하면 이전과갓치 한집에서 서로 화락하게 지낼고 근심을 너무하다가 화괴 가 복발해서 병이되엿더라

재덕이 춘국의 방으로 드러오더니 이전에 업든정이 엇지그리 잠시동안에 생 기엿는지 머리로 만져보며 맥도 집퍼보며 걱정을 무수이하더니 약을 지어다 가 연해대려 주며 먹으라고 권하는지라

춘국이 그 감사하물 사례하고 안색을정당이 가지며

(춘) 네! 아자씨제서 이처럼 염녀를하여 약사지 지여다주시니 대단히 황송하오이다만는 그러하오나 이병이 무삼병인지 내역시 아지를 못하는고로 의사의게 진찰을 하온후에 그병에 상당한 약을 먹겟사오니 조곰이라도 잊지아지 마옵소서

재덕이 우스며 거짓달내되

(재) 이에 춘국아 내가네의병을 임의짐작하고 의사와 상의하여 지여온 약이니 조곰도 염녀말고 먹어라

(춘) 네! 염녀할이야 잊겟습니가 감기와갓치 조곰지내면 나을터이니 약사지 먹을거슨 업습니다

(재) 허허 그러도 내가 지여온 약이니 대접성으로도 먹어야 올치

춘국이 내렴으로 헤오대 저번삼에 누의가 나더러 조심하여 지내라고 하였는대 필시는 곡절이 잇슬지라 첫째 의심나는것이 이전에는 내가죽게 아라도 엇더하나 말한번 아니하든이가 이번에 내게하는것을보니 필유곡절이라 저약을 먹기곳하면 죽을것갓치 마음이 절노 이상히 켜기고 먹기가 죽기보다 시른지라 속으로는 이상이아나 얼골에는 화색을 나타내여

(춘) 네! 오날만 지내거든 내일보아서 약을 먹겟습니다

재덕이 안색이 변하여지며 노귀를 띄우고

(재) 어허 저아해가 무엇을 안다고 내일먹느니 모레먹느니 하는나 나는 너를 얼마큼 불상히 녀괴여 약을지여다 주엇더니 그만큼 생각한거슨 아지 못하고 그래 이약을 아니먹는단말이나

(춘) 네! 그처럼 말삼을하시니 대단히 죄송하오나 이전부터 약을 조아하지아니하는고로 과시 먹기가 어렵습니다

재덕이 아모대답도 아니하고 안씨에게로 건너가서

(재) 아! 누님 춘국이가 이리々々하고 약을 아니먹는구료

안씨 재덕이와 관향이로더부러 흥미를 의론하기를 이번에 춘국이 알는때를타서 빈틈업시 독약을 먹이여 죽이려고 하였는데 일이 여의치못한지라 몸을소스라쳐 삼작놀나며

(안) 무어시야 고녀석이 그리하면서 약을아니 먹드란 말인나

(재) 네! 아니먹어요 누님이 가셔서 먹도록 말삼을 하여보십시오 여잔내 말노는 먹지를 아니해요

(안) 내가가서 먹으라면 고녀석이 얼는 먹을듯하나 어림업는 소리 마려라 별셔를인거슬 섯불리 하였다가 눈치를채우고 저의 누의처럼 다라나기 곳하면 공연이 소문만 흉하게 날터이니 고만두고 달리 해볼도리를 하는것이 도을듯하다

(재) 글세을시다 내생각갓해서는 아모도리가 업는데요

안씨는 흥계 주머니가 오장에 잇는지 당장에 생각을 얻는 잘하는 사람이라 웃는 낯으로

(안) 이에 내 마음에는 이리々々 하엿스면 조을듯하다

(재) 엇더케 한단 말삼이 온잇가 고놈이 눈치를 채이는 것이 이상하웁디다

(안) 글세말이다 엇지 알고 약을 아니 먹는지 몰나 이번에는 란향이 도알나 지 말고 우리 두리만 하여보자

(재) 글세를 시다 아난게 아니라 나도 역시 란향이 가 의심이나요

(안) 하々 너도 그리하나 나도 심분의 구는 의심이 나더라

(재) 그러면 이번에는 누님하고 나만 알고서 소리업시하여 볼시다 누님생각에는 엇지 하여야 되겟습닛가

(안) 내 생각에는 일이 하엿스면 도을듯하다 하더니

재덕이 귀에다 입을 대이고 무어시라고 소근々 하더니 안씨에 얼굴에는 화색이 나타나고 재덕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하더라

그 근심은 다른 근심이 아니라 안씨에 하든 말대로 주선을 하여야 할터인데 그 주선하기가 극난이라 어는때까지든지 성사되는 날이라야 일골에 근심이 피여 질터이라 안씨남매 란향을 점점 갖가지 부리지안는지라 그것은 안씨에게 대하여 자기일에 두번이나 방해가 된줄알미요 재덕이에게 대하여는 후일생각을 하니 즉방해라 이러함으로 재덕이와 란향이는 애정이 점점 머러지는도다

하로는 재덕이가 춘국이를보고 감언리설(甘言利說)로 달내는 말이

(재) 이에 춘국아 요사이 는 너의 병이 엇더하나

춘국이에게는 문병하는 것이 듯기가 실치마는 억지로 대답하되

(춘) 네 재작보듬은 조곰 낫기는 하엿스나 아주 쾌차치는 못하옵나이다

(재) 그러면 약은 시려하니 엇지 하든지 열는 날도리를 하여지

(춘) 네! 그러저럭 나을터이지요

(재) 응! 네 병을 보아하니 심화로 난듯하다 그러하니 약도 약이려니와 때일 경치도 온대로 산보를 하여 신선한 공기를 호흡하엿스면 하로 밧비 낫겟다

안씨 엽페안져다가 그 말을듯고 가장 아지 못하는체하며 재덕이를 도라보고 잔사한말로

(안) 이에 재덕아 그러면 아모조록 잘 다리고단이면서 소창이나 식여주어라 네가 아니 그러면 내라도 다리고 다니겟다 춘국아 아무조록 외삼촌에 할을 잘 드러라

(춘) 네! 잘 듯다썬이 온잇가

(안) 이에 그러면 오날이라도 다리고 나가가서 공원구경이나 식이고 드러오려무나

(재) 네! 다리고 나가겟습니다